

여수시, 역대 최대 국비 7690억 확보...현안 사업 탄력

올해 대비 305억원 증가해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등 'SOC 확충' 예산 반영 기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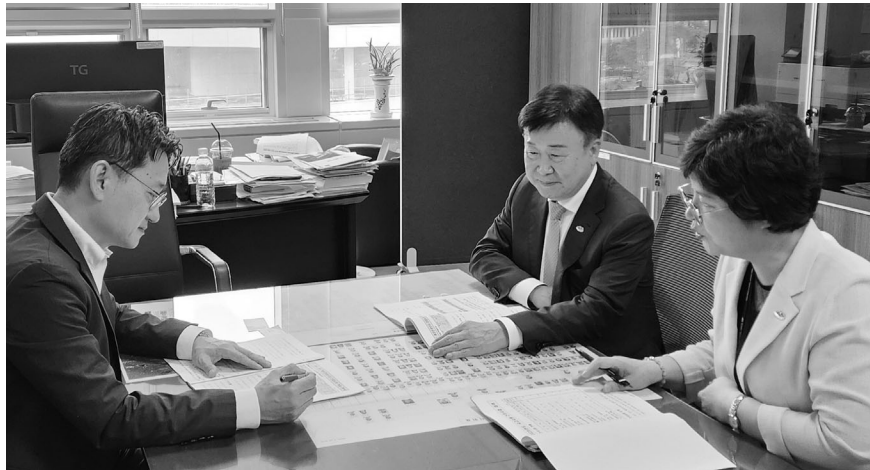
여수시가 '2025년도 정부 예산'에서 올해보다 305억원 증가한 국비 7690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 의결이 났음에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며 2025년도 정부 예산에 역대 최고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대형 SOC, 재난안전, 문화·관광, 농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SOC분야 국비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693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694억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80억원) 등이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464억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403억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52억7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22억8000만원) △급경사지(남면·소라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1억5000만원) 등이 확보됐다.

특히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소방청과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행안부, 기재부, 국회 등에 도입 필요성을 지속 개진해 왔는데, 이번 정부 예산 22억8000만원 반영으로 여수산단 외에도 호남권역 사업장의 산업안전도를 확보하고 폭우와 화재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23억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뷰티·스파 웰니스 관광 거점사업) (1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7월2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강진진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주요 국고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시는 섬박람회 사업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32억원의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반영에는 이르지 못했다. 6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섬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내년 정부 추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개설' 등 신규 사업의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따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큰 힘을 보태주고 협력해 주셔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 반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독서보조기기 설치·대여 서비스 광양금호도서관

광양시는 '2024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양금호도서관에서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대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및 권장 독서보조기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140개 기관이 공모 신청했으며, 68개 선정기관 중 전남도에서는 광양금호도서관을 포함한 2개 기관이 선정됐다.

광양금호도서관은 휴대용 독서확대기 4대, 공공이용보정기기 2대, 화면낭독 S/W 1대 등 3종의 독서보조기기를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독서보조기기는 지난 10일 설치 완료돼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1층 주 출입구 옆 전시장에 비치된 3종의 독서보조기기는 이용을 원하는 도서관 회원 누구나 안내 데스크를 통해 대여할 수 있다.

또 휴대용 독서확대기는 도서와 함께 관외 대여가 가능하며, 이용을 원할 시 안내데스크에서 이용 대장을 작성한 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이용보정기기와 화면낭독 S/W는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김미라 광양금호도서관 과장은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 저시력자, 중·노년층과 같은 독서 약자가 불편함 없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 진월면 금동마을 32가구 대상

광양시는 진월면 금동마을 32가구를 대상으로 급·배수관 매설 설계를 마치고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급·배수관 1.1km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금동마을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해 왔다. 마을에서 사용해 온 물은 봄철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있었으며, 가뭄으로 하천수나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지방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금동마을 32가구 60명 주민은 수도물을 공급, 사용할 수 있게 돼 건강 증진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3기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성어업인 직업질환 예방 앞장 고흥군, 3600만원 예산 지원

고흥군은 직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근골격계 등 직업 질환에 취약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 2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8만원을 지원해 여성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검진 항목에는 6대 근골격계 질환, 골밀도 측정, 혈액검사, 청력검사 등이 포함되며 건강검진 후 의사 상담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선정 문자를 받은 후 지정된 검진 병원에서 검진받고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고흥군의 지정 검진 병원은 고흥읍 고흥종합병원과 도양읍 녹동현대병원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2025년에는 더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집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

하게 참여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시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활동·참여가 가능한 20세 이상 시민 30명을 선발해 오는 31

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공공시설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공모 선정

종자 생산 시스템 등 지원 환경 친화·부가가치 상승

고흥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굴 양식 방법에 비해 폐기물과 부표 사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다수의 여가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생산시설(종자 생산 시스템, 자동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경수산업의 촉진과 기계화·시설현대화 및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은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8-1번지 등 6필지(9,594㎡)에 설치된다.

개체굴 종자 생산을 위해 4000여개의 수조와 살균시설을 구축, 일반 굴의 노로바이러스 취약점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체굴 생산을 달성, 연간 약 200톤 이상 생

산물 목표로 중국, 홍콩, 유럽, 미주 등으로 수출해 고흥산 개체굴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친환경 개체굴 산업 전환과 수출 물량 증가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지역 특산품인 '고흥황금개체굴' 상표를 출원해 수출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고흥에서 생산되는 굴은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 제22호로 등록됐다. 고흥=심정우 기자

순천시,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

순천시는 국제 및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가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겪는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에는 9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 전화 상담 140회, 방문 상담 24회, 찾아가는 현장 상담 2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세금 문제부터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사례로 한 시민은 8년 이상 경작한 땅이 대지로 등재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를 안내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순천시 누리집 마을세무사 정보란을 확인하거나 세정과(061-749-6101)로 연락하면 된다.

지역 담당 마을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제공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